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 국회가 묻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검증 TF 의원들

박순애 교육부 장관 관련 의혹 검증을 위한 공식 서면질문 제출

7월 1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의안과(701호)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과 의도적 지연술로 인해 진전이 없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검증 TF 위원들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관련한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의장을 통해 정부에 서면질의를 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시절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들로 검증 TF를 구성하고, 지난 6월 30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장녀의 위장전입 의혹, 서울대 재직 당시 서울대 입학한 장녀의 장학금 특혜 수령 의혹, 차남의 학교장추천 고려대 수시 입학 여부, 만취음주운전 적발 후 재직 학교로 부터의 징계 여부 등 7가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은 물론 인사청문회도 없이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검증 TF 의원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선출과 동시에 가능해진 정부에 대한 서면 질의권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국회법은 제122조에 “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 할 수 있게 되어있고,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 하게 되어있다.

그동안 원 구성 미비와 인사청문특위 미구성을 사유로 인사청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물론, 만취 음주운전 사유와 연구부정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던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검증 TF 의원들의 서면질의 접수는 7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7층(701호)에 있는 의안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검증 TF 위원

장득구, 강민정, 권인숙, 김철민, 도종환, 박찬대, 서동용, 안민석, 유기홍, 윤영덕, 이탄희 의원